

■ 特輯

北濟州郡 舊左邑 下道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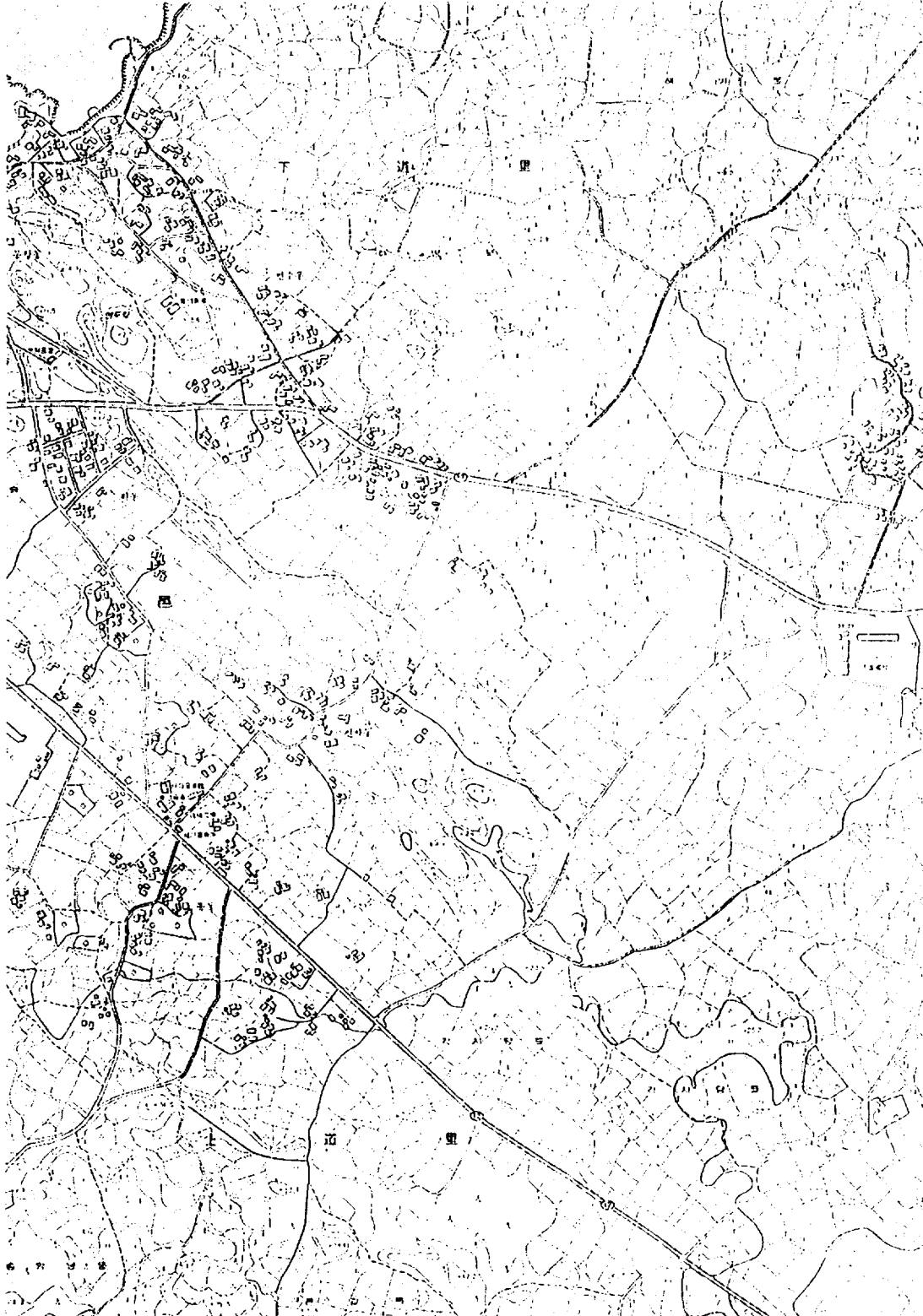
현지학술조사보고

1996년 8월 7일 ~ 8월 10일

● 조사경위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西

左

道

里

F

5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현지학술조사 지역 일람>

- 1 차: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1972. 8.21 ~ 8.24) 국문
 - 2 차: 북제주군 우도면 (1973. 8. 4 ~ 8. 8) 국문
 - 3 차: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1974. 8.23 ~ 8.26) 국문
 - 4 차: 서귀포시 중문동 (1975. 8.18 ~ 8.22) 국문
 - 5 차: 남제주군 성산읍 난산리 (1976. 8.19 ~ 8.22) 합동
 - 6 차: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리 (1977. 7.26 ~ 7.29) 합동
 - 7 차: 북제주군 애월읍 남읍리 (1978. 8. 6 ~ 8. 9) 국교
 - 8 차: 남제주군 안덕면 덕수리 (1981. 7.16 ~ 7.19) 합동
 - 9 차: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1983. 7.27 ~ 7.30) 국교
 - 10차: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1983. 8.17 ~ 8.20) 국문
 - 11차: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1984. 8. 1 ~ 8. 4) 국교
 - 12차: 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1985. 8.16 ~ 8.19) 국교
 - 13차: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1985. 8. 5 ~ 8. 8) 국문
 - 14차: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 (1986. 7.28 ~ 7.31) 국교
 - 15차: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987. 7.27 ~ 7.30) 국문
 - 16차: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1987. 8. 3 ~ 8. 6) 국교
 - 17차: 북제주군 한림읍 금통리 (1988. 7.27 ~ 7.30) 국교
 - 18차: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 (1989. 8. 1 ~ 8. 4) 국문
 - 19차: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989. 8. 2 ~ 8. 5) 국교
 - 20차: 북제주군 추자면 추자리 (1990. 7.27 ~ 7.30) 국교
 - 21차: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1991. 8. 1 ~ 8. 4) 국문
 - 22차: 서귀포시 보목리 (1991. 8. 3 ~ 8. 6) 국교
 - 23차: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1992. 7.31 ~ 8. 3) 국문
 - 24차: 북제주군 구좌읍 선흘리 (1992. 7.24 ~ 7.27) 국교
 - 25차: 제주시 봉개동 구천리 (1993. 7.30 ~ 8. 2) 국교
 - 26차: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리 (1993. 8. 3 ~ 8. 6) 국문
 - 27차: 북제주군 구좌읍 한동리 (1994. 7.29 ~ 8. 1) 국교
 - 28차: 서귀포시 강정동 (1994. 8. 5 ~ 8. 8) 국문
 - 29차: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 (1995. 8. 3 ~ 8. 6) 국교
 - 30차: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1995. 8.11 ~ 8.14) 국문
 - 31차: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1996. 8. 3 ~ 8. 5) 국교
 - 32차: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1996. 8. 7 ~ 8.10) 국문
- (※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조사 지역을 합친 것임.)

<조사 경위>

구비문학의 현지 학술조사는 구비문학 자체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학이 생활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문학을 포함한 문화일반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 문화창조의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고 있는가 등을 따지는 작업을 그 현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는 1972년 안덕면 창천리를 시작으로 1996년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조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이뤄져 왔다. 이번의 학술 조사에서는 대상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꽤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이미 조사가 행해진 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일단 제외하고, 마을의 발전도가 심하지 않아 학술적 가치가 보존된 지역을 선택하자니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학과가 학술조사를 실시한 지역이 30여 곳에 달하며, 대부분의 마을에 TV나 비디오 등이 보급되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언어생활에 있어서 표준어에 많이 물들어 있고 옛날 이야기도 TV 드라마나 비디오물 등에 밀려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요즘 제주도의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를 조사지역으로 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잠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어 해녀노래를 채록할 수 있겠다는 점, 둘째 목축업과 밭농사를 병행하고 있어 많은 민요를 채집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사전 문헌조사에 의해 당이 많다는 점 등으로 조사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비록 하도리의 마을규모가 크고 방대하여 조사가 쉽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결국 조사해야 될 마을이라 생각하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선정이 끝나고 5월 29일과 6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번째 사전조사에는 이(里)사무소를 찾아 마을의 현황

과 주 생업활동, 제보자를 소개받았고, 두번째 사전조사에서는 직접 제보자를 찾아다니며 개괄적인 제보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그런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행해진 이번 학술조사는 1996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사회배경, 방언, 설화, 민요, 신앙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강영봉 교수님의 지도하에 '어문조사론'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관심이 많은 일반 학우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 양영길·문순덕·오창명 선생님 등은 조사 기간 내내 옆에서 지도와 격려를 주셨다.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아무 사고 없이 끝나쳐지기까지 이 분들의 도움에 힘입은 바 매우 크다. 이 분들 외에도 이완중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졸업 동문 선배님들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여러 선생님들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조사에 도움을 주신 하도리 주민들과 이장님, 조사시 숙소를 제공해주신 하도초등학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음식과 함께 격려를 주신 오심정(3), 한혜현(2) 학우의 부모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고마움을 전한다.

조사에 임한 학우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학년	사회배경	방언	민요	설화	신앙
1	안진아 강영옥	한혜현	양수찬 이은주 허은정 장현석	김석원 고혜진	
2				신주행 문수진 김은숙	강문종 강재혁 염상호
3	오심정 이용철 윤미란 김원혼 송보현	전은경 김영림 김현진 김동현 문미숙 오승연	문은숙 고영준 송성덕 오명자	고영매 김선미 김은영 이경양 김문기	고선자 임소영 김순애 김수연 이혜정 이은주 공서영 장미옥
4		한만보	김선정 강경훈		

社會背景

차 례

1. 지리적 환경
2. 역사적 환경
3. 인문적 환경
4. 산업 구조

1. 지리적 환경

구좌읍 하도리는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약 39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종달리와 서쪽으로는 세화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잠녀 항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하도리는 자연부락이 7개 있는데 각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昌興洞 : 원래는 '펼개동네'라고 불렀었다. 펴이 많은 개(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1945년 경 40여 호에 달하여 창흥동이라 명명하고 동동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2) 東洞 : 암반이 갈려진 못이 있는 동네라 해서 '빌레못 동네' 또는 굴동에서 동쪽에 있다 해서 '동가름'이라 불렀었다.

(3) 窟洞 : 하도리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움푹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굴가름'이라 했으며 하도리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며 큰 동네이다. 입주 연대는 미상이나 구전에 의하면 양천 허씨가 지세터(지금 굴동과 신동 경계지역)에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허씨가 입주주민이라 볼 수 있

다.

(4) 新洞 : 창흥동과 면수동이 설촌되기까지는 이 동네가 제일 늦게 설촌된 동네이므로 새동네라 불렀다.

(5) 西門洞 : 원래 별방진 서문 쪽에 생긴 동네였는데 지금은 별방진 옛성터를 중심으로 확장된 동네이다. 별방진이 종종 5년에 축성되었으나 설촌 연대와 선입주민은 미상이다.

(6) 西洞 : 원래는 '너븐더리[廣橋]동' 또는 굴동에서 서쪽에 위치한다 해서 '섯가름'이라 불렀었다.

(7) 面水洞 : 100여년 전에 金才興 公이 너븐더리에서 선입주해서 설촌한 동네이다.

이 7개 자연부락 외에 지금은 완전 폐동된 노무리동[虎武洞]이 있었는데 서동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면수동과 신동으로 이주하면서 1940년도를 전후해서 폐동되었다.

그 외에 하도리의 지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國喪동산 : 굴동에서 동북쪽 500m 지점에 있다. 국상을 당해서 한양을 향하여 망곡을 하는 뜻에서 哀器遙拜를 했다. 순종의 국상 때 백립을 쓰고 遙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 射擲동산 : 굴동 속칭 매못 동산 근처에 있는 동산으로서 옛날 사병들이 궁술을 겨루던 장소이다.

(3) 깃대왓 : 옛날 병사들이 군기를 세우고 군사훈련을 했다는 장소이다.

(4) 술대왓 : 깃대왓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술은 화살을 맞추는 목표이다.

(5) 증통굴 : 증통(銃筒을 말함)을 설치해서 적정(敵情)이 있을 때 이용했던 바닷가 지명이다.

(6) 난이왓 : 옛날 난리를 평정했던 전쟁터였다.

(7) 남당 : 토산당 귀신을 모시는 일땡당. 어선의 안전과 애기 잘 낳고 잘 키우며 집안 잘되게 하는 할망당이다. 일설에 의하면 신촌리에

元堂이 있는데 몽고족이 들어 오면서 당을 설치했다는 이 당과 상통한다고 한다.

(8) 지세터 : 하도리 1476번지 굴동에서 신동으로 가는 길 남측에 위치한 옛 기와집터로서 굴동 創村年代의 옛집이다.

(9) 관전밭 : 부재훈(부한조 5대조부)이 제주목 이방으로 재직시 관에서 내려준 밭이라 하여 관전밭이라 했다. 이 집안은 이방 별방집이라 불리운다.

(10) 都家 집터 : 마을 사무와 향회를 하던 집터이다. 현 이(里)사무소 동남쪽에 있다.

그리고 하도리에는 문주란 자생지인 토끼섬이 있다. 이는 천연기념물 182-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하도리 굴동 앞바다 150m 거리에 있는 섬으로 그 넓이는 800평에 불과하나 석영이 혼합된 백사장과 높이 10m의 현무암 동산으로 이루어졌다. 蘭島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만조시에는 백사장과 동산이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난들여(바깥쪽의 여)라고 불리웠는데 1927년 경 이 고장 윤석준 씨가 이 섬에 토끼를 放飼한 일이 있어서 그 후로 일인들이 兔島라고 한 것이 토끼섬이라 불렀고 난도라 함은 문주란의 蘭자를 딴 것이다.

창흥동, 동동, 종달 지미봉 기슭의 일대에 수십만평의 광활한 해안에는 매년 9월부터 12월 사이 저어새, 백로, 갈우, 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이 곳을 찾아온다.

2. 역사적 환경

(1) 설촌유래

『구좌읍지』(1986 부영성書)에 의하면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를 동서

로 道縣을 설치하고 김녕을 비롯한 14개 현촌으로 나누어 동로를 조천 下道衣灘里, 돈의 수산으로 나누어"라는 기록으로 보아 下道里名이 원래 하도의탄리(下道衣灘里)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증종 5년(1510) 우도에 왜구가 자주 침범하므로 金寧里 防護所가 하도리로 이전되어 特別防禦鎮地인 別防鎮이 구축된 후부터는 別防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도리로 개명된 연대는 미상이나 고종8년(1874)에 李密熙 목사에 의하여 시행된 행정구역 변경 조치에 따라 구좌면이 14개 행정리로 개편된 전후로 추측된다.

설촌 연대는 여러 문헌과 구전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沈羅夫氏世譜에 의하면 六世孫 副詞直 禦梅將軍世榮公(夫順彦 17대조) 蘭野里에서 移去住 下道里라 기록되어 있고 그 선친 有廉公 成宗 14년 癸卯(1483)生이라는 기록이 있다. 前記 世榮公의 配淑人 陽川 許氏라는 족보상의 기록과 高氏世譜에 의하면 高氏中始祖22世 通政大夫 高漢昭公의 墓가 '안직이 窟'에 있으며 漢昭公의 子 應智公이 선조 27년(1594)에 嘉善大夫로 승직되었으며 前記 漢昭公 配淑夫人 陽川 許氏라는 족보상의 기록과 高陔任씨에 의하면 한소공이 제주에서 하도리로 이거주하였다 하며, 또 허씨가 지세터에 살았다는 口傳과 부세영공과 고한소공의 배위가 陽川 허씨라는 부씨 고씨의 세보상의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들로 미루어 보아 현 굴동에는 허씨가 먼저 입주하고, 서동에는 부씨가 동동에는 고씨가 각각 먼저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씨와 고씨의 입주연대는 약 450년 전후로 추산이 되나 허씨가 先入住民이라고 볼 수 있다.

『구좌읍지』(1986 부영성著)에 의하면 加麻에서 하도리까지의 입주과정을 약 1000년 전후로 추산하고 있다.

(2) 해녀항쟁

일제는 잠수들의 권익 옹호라는 미명아래 해녀조합을 조직했다가

1912년에 어업조합으로 통합하여 조합장을 행정과 경찰권을 가진 道司가 자동적으로 겸임하게 하고 일본인에게 해산물 독점상권을 주어 해녀들의 이익을 浸告할 뿐만 아니라 조합비를 무리하게 징수하는 한편 노인이나 미성년자에까지도 出稼증명서를 발부하고 출가료를 강제 징수했다. 이러한 모순의 시정은 구두로 건의했으나 반응이 없자 각리 잠수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 1932년 4월 하도, 종달, 세화, 평대, 한동리 등의 잠수 1,000여명이 경찰관 주재소인 세화리에 결집, 해녀대표로 하도리 출신 夫春花, 金玉蓮, 夫德良, 高順孝 諸氏 등이 田中道司에게, ‘일본 상인에 독점상권을 주지 말 것’ 외 8개 조항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거부당할 뿐아니라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해산을 강요하는 한편 체포 연행해 갔다. 이 중에서 하도리 출신인 김순중, 오문규 씨는 6년간, 부춘화, 김옥련, 부덕량 씨는 6개월의 옥고를 당하였으며 기다 다른 사람들도 1개월 이상의 미결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3) 별방진

별방진은 지방기념물 24호로 지정된 곳으로 중종 5년(1510) 6월에 제 주목사로 도입한 張琳이 우도에 왜구가 자주 침범하므로 김녕 방호소를 이전하여 축성한 것이다.

본진은 명월진과 더불어 그 규모가 도내유수한 지위를 점하여 그 주위가 2,390척, 높이가 7척이며 요소요소에 망대가 10개소나 구축하였다. 축성 당시에는 흉년이 계속되어 초근목피와 해조류 등으로 연명했으며 자기가 본 인분조차 찾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2년 전으로 이 당시는 왜구침범이 자주 있었다. 사태가 발생하면 해안근방의 연대와 높은 지대에 마련한 봉대에 연락하였다.

광무 10년(1906) 제진조방장 유향장교등 철수에 따라 별방진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난으로 일부의 방군서기 등 하부

책임자 외에는 거의 해산되었다.

순종 원년에 일본은 정미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병권·징세권·재판권을 강탈하여 별방진의 기능도 통감부의 지휘하에 속하게 되고 군기등도 몰수당했다.

3. 인문적 환경

하도리는 1995년 12월 현재 757세대로 남자 1,230명, 여자 1,239명, 총 2,469명이다.

자치단체로는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어촌계, 축산계, 감귤작목반, 당근작목반, 조기축구회, 영농회, 4H회가 있고, 관공서로는 하도우체국, 하도 보건진료소, 리사무소가 있고 금융기관으로는 구좌농협 하도지소가 있다. 교육기관으로 하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다.

절은 세 군데로 금봉사, 명법사, 용문사가 있고, 교회는 장로교 1개소, 침례교 1개소가 있으며, 당으로는 할망당, 할미당, 각시당 등이 있다.

유교행사로 마을제(포제)를 지내는데 처음엔 1리 단위로 하다가 마을 규모가 커지면서 부락별로 실시, 현재 7개 부락 중 굴동만 지내고 있다. 국상동산에서 음력 정월 초 丁亥日에 실시하며 이 때를 넘기면 그 다음 丁亥日에 한다.

4. 산업 구조

하도리는 제주도 해안마을의 전형적인 半農半漁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農家數는 458세대이며 漁家數는 231세대이지만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함께 하고 있다. 경지면적으로는 밭이 523ha이고 과수원이 6ha

이다.

주요 농산물로는 맥주맥이 3,000가마, 고구마가 450톤, 유채가 800가마, 당근 450톤, 쌀보리 1,000가마, 감귤 200톤이 연간 생산된다.

잠녀는 어촌계에 가입하게 되는데 95년 현재 594명이며 연간 채취물은 대개 툇 40톤, 천초 80톤, 소라 65톤, 감태 20톤 정도이다. 그리고 포구가 발달되지 않아 배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1톤 반 정도의 소형선박으로 16척이 있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광어양식장이 한 군데 있고, 개인운영의 송어양식장 두 군데와 송어양식장 한 군데가 있다.

가축보유상황은, 소가 780마리, 돼지 700마리, 말 160마리, 닭이 약 5,500마리이다.

특히 목장은 하도리 축산계에서 공동목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도 마을 축산계 단위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면적은 약 70만평이다. 이 목장에서는 소만 기르고 말은 개인단위로 방목한다.

그 외 상업활동으로 목공소 1개소, 알미늄 샷시제작소 1개소, 식당 2개소, 이발소 1개소, 전분공장 1개소가 있다.

方 言

차 례

- | | |
|---------------|--------------|
| 1. 농업명 | 2. 기구명 |
| 3. 동물명 | 4. 지명 |
| 5. 바다와 관계된 용어 | 6. 나무, 기타 식물 |
| 7. 인체명 | ※ 제보자 |

1. 농업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하도방언	비고
벼(밭벼)	나록	산뒤, 나록	근쌀(나록쌀)
고구마	감저, 감जू	감저	
감자	지술, 지실	지술	
보리	보리	보리	얇은뱅이보리:아즌뱅이보리 토종보리:토종배기보리 팥줄보리(물이 없는 곳에서 자람), 꿀보리 썰(나누어진 보리), 징누리, 설누리 등도 있다.
쌀보리	술오리, 술보리	술보리	
맥주보리		피보리, 주냉이보리	
콩	콩		두불콩, 장콩, 강낭콩, 보리콩, 상콩

파	패마농, 마농	패마농	
좁쌀	좁쌀	호린좁쌀:차조(오메기떡을 만들 때 사용) 모인좁쌀:멜조	조:서숙쌀, 강돌다리, 무시리, 계각지리
녹두	녹디	녹디	cf.돔비
매밀	모밀, 모물, 모물	모물, 모물	
오이	웨	츨웨, 물웨	
깨	페	페	노린페, 검은페, 흰페
갯잎	유잎	유잎	
무	눔뻬	눔뻬	
나물	눔물	눔물	
수수	대죽	강냉대죽, 강냉대죽	cf.사탕수수:사당대죽, 새당대죽, 누렁대죽 (빫자루 만들 때 사용됨)
보리짚	보리짚, 보리짚	보리칩, 보리뻬	
덧밭	우연, 우영	우영	
상추	부루	부루	
마늘	콍대사니	콍대사니	드룻마농(들에서 나는 마늘)
고추	고치, 고초	고치	
가마니		가맹이	cf.맹탱이
좁	좁	좁	
비료		똥소금	

2. 기구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하도방언	비고
채	채	채, 얼맹이	cf. 그논채, 대채
연자방아	몰방애, 몰방이	몰고래	
삼태기	굴채, 굴채	굴채	

채롱	채롱, 차롱	차롱	
키	푸는채	푸는채	
도마	듬베	듬베, 안반	
아궁이	숫강알	숫강알	
붓들	숫덕	숫떡	
거울	섹경	셋경	
성냥	화곽	불각	
방석	방석		cf. 정젓방석
호미	굴갱이, 굴각지, 굴개기	굴각지, ㄱ개기	
창	소살	작살	cf. 비창: 전복류를 채취할 때 쓰이는 기구
맷들	그래	그래	젠그래, 들그래
얼레빗	얼레기, 얼럭지, 어레빗	얼레기	
절구	남방애	도기방애, 방애혹	
절구공이	방엿귀, 뱅잇귀	방엿귀	
반집고리	바농상지	바농상지	
낫	호미	호미	
항아리	망데기, 망다기		cf. 지새와(물 받아 놓는 항아리)
쇠명예	쇄명예	쇄명예	cf. 쇠질메(소에 짐을 실을 때 쓰는 기구)

3. 동물명

표준어	제주방언의 일반형	하도방언	비고
까마귀	가마귀, 가나귀	가마기, 가메기	
고양이	고녕이, 고녕이	고녕이	
돼지	돏, 돼야지, 도야지	돼야지	

말(馬)	말	말	cf. 망아지:몽생이
소	새	새	cf. 수소:부랭이, 암소:암새, 송아지:송애기
메뚜기	말축, 만축, 말축	말축, 물축	
꿩	꿩	장꿩(수), 순작(암)	
쥐	령이, 쟁이	령이, 메누리	
달걀	독새기	독새기	
빙아리	빙애기, 빙아리, 비애기	빙아리, 빙애기	
(술)개	소제기, 소로기	똥수래기, 똥소래기	
반딧불	불한지	불한지, 불난지	
잠자리	밥주리	밥주리	
달팽이	돌뱅이, 돌뱀이	돌뱅이	
참새	춘새	밥주리 생이, 춘새	
지네	지냉이, 주냉이	주냉이	
살모사	물뱀기	물뱀기	cf. 돛줄레 (민물에서 사는 파충류, 퍼런 색)
소금쟁이	소곰바치	소곰바치	
배짱이		뱃쟁이	cf. 말축
매미	재열, 자리	재, 자	cf. 왕재, 쫓재, 고삭재('고시고시' 하며 울기 때문에 붙인 이름)
거미	거미		거미줄:게미줄

4. 지명

밭, 들	관전밭, 난이왓, 납새, 동네왓, 솔대왓, 매화뭇, 벽꾸리왓, 안드르(안뜨르, 안드르), 엉팍, 옷녀키, 일천구기, 좌파르, 큰물왓, 혼저리
------	--

동산	국산동산(국상동산), 넓은들이동산, 담단동산, 독지동산, 망동산, 매못동산, 범산이굴, 배닥밭동산, 비석거리, 새바리동산, 생이동산, 앞동산, 연도망, 큰동산, 격대
마을	굴동(窟洞), 면수동(勿水洞, 누무리동), 동동(뵐레못 동네), 신동(새동네 新洞), 서문동, 창흥동(뵐개동네), 서동(西洞), 앞방올래
개	중통굴(대포, 뵐개), 오룡코미, 용목(용목개), 장대, 철모살, 한개, 호치무르
진(鎭)	별방, 별방성터/별방진터, 별방소(別防所/하도리), 남문(나문기)
터(지경)	성철이터, 쉬는팡, 지샐터, 거옥대, 감은질, 원개, 짱시부리, 분티, 소래기통, 대머들, 검은 머들, 안지 기골
오름, 골짜기	드랑쉬, 아끈드랑쉬(작은 오름), 무두망(무두명), 손지오름, 용눈이오름, 와양미(큰 와양미, 죽은 와양미), 소낭굴, 한무덕굴
용천수	억물, 만물, 두리물, 할망물, 소래기물, 구쟁기물, 몽그니물, 뵐갯물, 서느렁물, 구녕물, 허드레물, 개아당, 갯물
못, 우물	너브못(넙으못, 너부못), 매못, 듚지못(등지못), 뵐레못통, 혼저리물통
여	가른소여, 배발라진동산, 보석코지, 소진다지, 웅그르여, 가여, 상여, 중여, 드른들, 세배여(새배여), 혼여, 뵐러진여, 너븐여, 억산여, 도당개, 소여, 배여, 웅그미, 주방여
기타	금봉사(진봉이절, 진뵐이절), 나문뵐덕(남문뵐덕), 도려(도의탄, 도의탄포), 엉팍골목, 오섯밭골목, 외음도

5. 바다와 관계된 용어

- 객곳: 바닷가
- 생이덕, 불턱: 잡녀들이 잠수 후 불을 쬐는 곳
- 터위: 태우
- 삼배선: 돛이 3개인 배

- 듬북, 가태: 바다 식물의 이름
- 엉덕: 바위 밑
- 구히: 가
- 나불: 파도
- 들물↔쓸물
- 흥맹이: 바다에서 쓰는 호미의 종류
- 소대, 구쟁기: 소라
- 물툫: 갯듬
- 고재기(고지기), 노랑쟁이, 실쟁이, 솔채기: 식물명
- 즈문다: 채취하다
- 꺼꿈메기: 전복의 새끼
- 생복: 전복
- 망사리: 잠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한 후 채워한 것을 넣어두는 것
※ 예전에는 억새로 망사리를 만들으나 요즘에는 그물로 만든다.
- 쿡태왁: 해녀 작업할 때 부력을 이용하여 그 위에 가슴을 얹고 헤엄치는 데 쓰는 박으로 만들어진 태왁이라는 연장의 한 가지. 쿨락태왁.
- 성기: 성계
- 출구덕: 바다에 나갈 때 허리에 차는 구덕
- 빌레: 돌출된 암반

6. 나무, 기타 식물

송악줄(담쟁이), 담쟁이쿨, 테역, 구름빛낭, 개물뜯게낭

7. 인체명

- 양지: 볼
- 임뎡이: 이마
- 낫: 얼굴
- 우뚝지: 어깨
- 흘목: 손목
- 득지: 팔뚝
- 동무릎: 무릎

* 앞의 표에서 '제주방언의 일반형'이라 함은 기존에 간행된 제주방언사전류에 등재된 것을 뜻한다.

※ 제보자

한창유(여, 85세)	강하월(여, 83세)	고송자(여, 81세)
고경춘(여, 80세)	김수선(여, 76세)	김순필(여, 70세)
강옥찬(여, 67세)	강정희(여, 67세)	고문교(남, 66세)
부군자(여, 66세)	부화옥(여, 64세)	이범택(남, 61세)

民 謠

차 례

1. 노동요

2. 타령

3. 동요

1) 전승동요

2) 놀이요

3) 기타

※ 제보자

1. 노동요

가. 「해녀가」

우리 이 제주도에 가히 없는 해녀들
비창한 살림살이 세상이여라
추운날 더운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의 물결에 시달리는 몸
아침 일찍 집을 떠나 밤이 되면 돌아와
우는 아이 젖 먹이며 저녁밥 진다
하루종일 하였으나 번 것은 기막혀
살자하니 한숨으로 잠 못 이루네
이른 봄 고향 산천 부모 형제 이별코
온 가족 생명선을 등에다 지고

파도 세고 무서운 저 바다를 건너서
조선 각지 대마도로 돈벌이 간다
배움 없는 우리 해녀 가는 곳 마다
놈들이 착취기관 설치해 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만 해므로
가히 없는 우리 해녀 어딜 갈까

(제보자 :오정순)

나-1. 「이여싸 - ①」

이여싸나 이여싸 이여싸나 이여싸
어여차 소리에 해 올라가는구나
어여차 소리에 해가 내려가는구나
이여싸나 이여싸나
그물에 은과 금이 깔려서도
높은 낭에 열매도다
이여싸나 이여싸
스물 나쁜 설 나쁜에 요내 상처 고칠말가
입산 낭도 무해려간다 상설백도 무해려간다
오내 상처 거칠쏘냐 요하늘에 구름은 거쳐도
우리 배랑 잘 넘어 간다 요바당에 물질허며 살을쏘냐
물로 뱅뱅 도라진 섬에 삼시끓여 물질허영
한푼 두푼 모은 동전 정든 님 술 값에 다들어 간다
저어라 차 여기야 저기야 저어라 저라
우리나 배는 잘도 간다
잘은 가는 잣나무 배가 술술가는 소나무배가
어서 슬슬 가주세요
요내 상처 부러진들 부산 항구 고동항이 없을쏘냐
요내 홀몸 부러진들 병원장이 없을쏘냐

놀릴대로 놀려보자

머루머루 상머루야 지붕에도 머루가 있나
요내 차게 머루 없이 젖을 맡가 져어라 차

(제보자 : 오이순)

나-2. 「이여씨 ② - 노 젓는 소리」

이여씨나 이여씨 이여씨나 이여씨
어떤 녀은 팔자가 좋안
고대광실 높은 집에
남전북전 너른 밧디
와랑시랑 살아보는고
이여씨나 쳐라 배겨라
져어라 져어라 이여씨나
이여씨나 이여씨

(제보자 : 양청자)

나-3. 「이여씨 ③ - 노 젓는 소리」

이여씨나 이여씨나 이어도 사나
우리 배는 잘도 나간다
진도바당 한글로 가자
이여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 물에랑 이사공아 고 물에는 고사공아
허리띠 밑에 하장하야 물때나 점점 늦어나 간다
이여씨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나 배나 잘도야 간다
술술가는 술나무 배나 잘잘가는 갓나무 배나
이여씨나 이여씨 쳐라 쳐라 잘도야 간다
쳐라 쳐 쳐라 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이여씨

물로 뱅뱅 도라진 섬에 삼시 굶영 물질 허영
한푼 두푼 모인 동전 정든 님 술값에 다 들어 가네
쳐라쳐라 쳐라 쳐
(칭취 불능)

(제보자 : 고복생)

다-1. 「사대소리 - ①」

어이야 디야로다 어이야 디야로다
검질 짓고 굴 너른 밧디 조라움이 네 벗이로다
어이야 디야로구나 어야차 디야 방아로다
나 노래랑 산 넘어 가라
어이야 디야로다
나 노래랑 물 넘어가라
어이야 디야 산이로다
산도 물도 난 아니 넘어영 유지 풀네 집 넘고 간다
검질 짓고 굴 너른 밧디
저래가는 저 아가씨야 조라움이 네 벗이여
버리 조진 뒤 정도 좋다
치매 입은 앞 정도 좋다
몸에 맞는 오라방 시민 아주방도 삼을만 하다
어이야 디야로구나

(제보자 : 오정순·현여옥)

다-2. 「사대소리 - ②」

검질 짓고 굴 너른 밧디
앞 명예야 드러나오라
뒷 명예랑 나고나가라
어기여 디여 산이로구나

산천초목 새 송이 나건
요내물은 늪어나진다
어기여 디여 산이로구나
어기여 디여 산이로구나
해다 지고 날 적근 날에
조라우민 나 벗이로구나
어야 디야 산이로구나

(제보자 : 양청자 · 고복생)

라. 「물 평상 위에 놓 물 먹이레 물구 데리는 소리」

어려 어려 어료 형 어료
요디 영 어기형 어려료
어려 어려려려려
(물이 어디 가가민 막는 소리라)
얼라게요 이놀의 물들은 열두돌 금년 중사다가
임자말을 아니 들겠느냐 어려료

마. 「발 불리는 소리」

려 려 월 월 우려려려려려
앗두리 뒷두리 (칭취불능)
(칭취불능) 아호 호호호 우리 물들은
담 염으로 수숫발을 잘 다리는 구능아
아호 으 으에 에레레 호호호호
월흥 월하라

(제보자 : 고태호)

바-1. 「꺾개 꺾는 소리 - ①」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이여허 그래 ----
그들게 그랑 저녁이나 어허 ----
붉을 때 해영 혼디해 저녁 ----
어두운 집이 오늘이여 ----
붉은때 해영

(제보자 : 오정순)

바-2. 「그래 가는 소리 - ②」

이여 이여----
이여도라
이여 그래---- 그들게 그랑
저녁이나 붉은 때 허라 혼디 저녁 어----
어두운 집이 오늘 이 ----- 붉은 때 허라
날만 못한 진예도 산다
날만 못한 정예도 산다
(창취 불능)

(제보자 : 오이순)

사. 「출 배는 소리」

이어 디 영 어아
칠팔월에 반가운 바람이 비를 갖는
서남풍이나 북서풍이나 불어와 가며는
어깨가 들썩들썩 낮조룩이 춤을 춘다
덜그럭 덜그럭 제주도라는 디는
돌도 많고 산도 많고 푸름도 많을 지텐데
산봉우리마다 돌봉우리마다 아름다운 제주도랍니다

아. 「시집살이요」

고추 생강 매웁다 헌들
시집살이 더 매울쏘나
어디여 산이로구나
간장 타는 요내토군
간장만 탄 보나니
요내 심정 다 타는구나
어---- 어히여 디여로구나

(제보자 : 정명옥)

2. 타령

가. 「이야흥 타령」

한라산 상상봉 높고도 높은데
이야흥 백록담이라
이야흥 이야흥 그렇구말구요
남풍 긴긴밤 사공의 뱃노래
이야흥 용연야밤에
이야흥 이야흥 그렇구말구요
동해물 뜨는 해 야광주 같은데
이야흥 성산일출이
이야흥 이야흥 그렇구말구요
김치국물은 시어야 좋구요
이야흥 다흥치마는
이야흥 이야흥 그렇구말구요

(제보자 : 부명성)

나. 「청춘가」

바다 바다 넓은 바다
등등떠난 저군남아 이층삼층 아는 조층
일만동포가 다 알건만
요내 심정 타는 줄은 어느 누가 알아주티
얼시구나 절시구나 아니야 놀아서 무엇허리
요때에 못놀며는 어느때난 놀아나보티
놀기야 좋아 20세요
살기좋아 30세요
얼시구 좋다 정말로 좋네 아니놀지는 못허리요
놀아가는 비둘기는 어절사물 얼리건만
오시때에 신신난전 외이여저이 가시른 못열리니
얼시구나 얼시구나 아니하지는 못노리라
빨래하는 저 산천에 부심새는 해년마다 돌아오고
우리 부모 한 번 가난 또다시 울줄을 영 모르네
얼시구나 얼시구나 아니놀아서 무엇허리
다 늙어 약한 몸에 황세가 어떤 병을 드난
임 오시라고 편지를 하니 약만 쓰라고 답장왔네
무정하고 냉정한 님은 생각하니 냉정허구나
얼시구 얼시구나 아니하나는 못노리라
석산미녕 곱쳐부리 자지고 어물 돌아놓구
항노치마에 노린단 들러 누구 간장을 태올려나
얼시구 얼시구나 아니 놀지는 못노리라
창창가는 강바위에 빨래하는 요처녀야
당신날이 앓아나 보아 속에 속입을 달라허구
얼시구나 얼시구나 아니 놀지는 못노니라
아니 놀아서 무엇허리
아니나 하나는 아리울다

노새 놀아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노나니

(제보자 : 정명옥)

3. 동요

1) 전승동요

가. 「다리 포개어 놀 때 부르는 노래」

흔다리 흰다리 개총개 사나노자 버분자
어어 곤노곤노 어리룩다리룩 툇감 새 끈

(제보자 : 양청자)

나. 「애기 흥그는 소리」

자랑 자랑 윙이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은딸 금뿔 은자동아
금울 주면 너를 사나
은을 주면 너를 사나
일가친척 화목동아
(칭취 불능)
달아 달아 보름달아
일가친척 화목할 달아
가매귀 춘놀개 닭은 달아
윙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윙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제보자:고복생)

다. 「핑 노래」

핑핑 장서방 어찌 어찌 살았어
그럭저럭 핑 주섬먹엉 살았어
이발너머 저발너머 핑 주섬먹엉 살았어

(제보자 : 고복생)

라. 「비노래」

비야 비야 오지마라
장통밭디 물 골랐져
말축새끼 시집갈 때 장옷 다 젖는다

(제보자 : 오정순)

2) 놀이요

가. 「손 놀이 할 때 부르는 노래」

책가방 없는 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소년이 다가와 내게 말했지
날보고 좋아한다며 친구되지 않겠니
울랄랄라 랄랄라 울랄랄라 랄랄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만두를 싫어해
만두를 먹으면 배탈이 나지요
배탈이 나면은 병원에 가지요
호박같은 간호사에 장미같은 간호사

나. 「고무줄 할 때 부르는 노래」

장난감 기차가 칙칙폭폭 달려간다
과자와 설탕을 싣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 주러 갑니다

3) 기타

가. 얼음과자 맛이 있다고 한개두개 먹으면 이가 시려요
얼음과자 맛이 있다고 세개네개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가요

나. 간질간질 봄바람 불어온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같은건 필요없다 저리 가거라

다. 깡통에 보리밥은 누가 먹었나
자네하고 나하고 나눠 먹었지
도래미파술 도래미파술
깡통을 열어보니 똥이 묻었네

(제보자 : 오선미, 상미, 보애)

※ 제보자

제보자 1 : 양청자 (여, 54세)

제보자 2 : 고복생 (여, 59세)

제보자 3 : 오정순 (여, 76세)

제보자 4 : 현여옥 (여, 81세)

제보자 5 : 오이순 (여, 73세)

제보자 6 : 정명옥 (여, 67세)

제보자 7 : 부영성 (남, 80세)

제보자 8 : 오선미, 상미, 보애

제보자 9 : 고태호 (남)

(초등학생)

說 話

차 례

- | | |
|---------------|------------|
| 1. 설문대 할망 | 2. 물장오리 |
| 3. 지네 이야기 | 4. 할미당 이야기 |
| 5. 무덤 이야기 | 6. 도깨비 이야기 |
| 7. 숲 위에 앉은 문어 | |

1. 설문대 할망

옛날 어떤 할망이 이신디 속곳을 해 주민 소섬과 성산 새에 드릴¹⁾ 놔 주켄 해도 그 할망 속곳을 맹질²⁾ 일곱동이를 들여도 부족헤³⁾ 드릴 못 샀덴 험주.

그 할망이 오름들을 갈래죽⁴⁾으로 들렁 데끼멍⁵⁾……. 죽영 데깁건 죽은 오름, 하영 데깁건 큰 오름, 소략 하영 데깁건 한라산이렌 험주.(고만선, 71세)

2. 물장오리

한라산 위에 장오리(물장오리) 물이 이신디 수드리⁶⁾ 보말도 있고. 한라산 위에 비가 오잖아. 비오민 그 장오리 물이 꼭 차그네 전복이 가새

-
- 1) 다리물.
 - 2) 명주물.
 - 3) 부족하여서.
 - 4) 삼.
 - 5) 던지면서.
 - 6) 두드럭고등. 빨소라과의 바닷고등.

에 뱅뱅 돌아댕기당 그 물에 풍당 빠지민 큰 내가 느린덴 허는 거라.
고동도 댕기당 푹 떨어지민 죽은 내주.

장오리 물이 옛날에 전복도 있고 수드리도 있고 소라도 있덴 햄서.
옛날에는 고기도 산에 보름 살고 바당에도 보름 살았주게. 돼지도 산돼
지라고 해서 물에도 보름, 산에도 보름 살고 허여신디. (고만선, 71세)

3. 지네 이야기⁷⁾

옛날에 어느 창고에 지네가 있었다. 삼년에 한번씩 처녀를 바쳐야 그
마을이 편안했다. 한번은 장닭을 사서 처녀 대신 창고에 들여놓았다. 지
네와 장닭은 원래 천적이어서 서로 싸우다가 지네가 죽었다. 그 뒤로
처녀를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고만선, 71세)

4. 할미당 이야기

난도리 섬에 가서 돌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고향을 지르면 신이
성내어서 파도가 세어져 해녀들이 물질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홍경주, 76세)

5. 무덤 이야기

굴동에서 하도초등학교 가는 중간 지점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것
은 자살한 처녀의 무덤이다. 옛날에 완고한 집안의 어떤 처녀가 임신을
하자 손가락질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그 무덤을 지나갈 때에는 항상 아기의 울음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6. 도깨비 이야기

파란 도깨비불이 내(제보자) 앞으로 달려들었다. 앞에 오니까 잡아서

7) 이 내용은 제보자가 어릴 적 부산에서 지낼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

담배지갑에 담아 놓았다. 잔칫집에 가서 풀어 보니 말뚝불 같은 것이 하나 있었다. 제보자는 옛날부터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도깨비불의 존재를 믿고 있다.

7. 술 위에 앉은 문어

부업의 술 위에 파란 불이 켜져 있었다. 두려워서 심방을 불러서 곳을 하였다. 나중에 살펴보니 바구니에 담아 놓았던 문어가 술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었다.

※ 매해 조사를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하도리에서도 설화를 제보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조사자들의 사전준비 미흡과 열의가 부족한 점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으나, 각종 마스크의 영향으로 가족이나 이웃들간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눌 여건이 차단됨으로써 이러한 여건하에서만 구비전승되는 설화가 상실되는 현실도 조사내용의 부실에 한 몫을 담당했다.

‘사랑방’의 상실은 이웃들과의 대화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간에도 필요한 말 이외에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에 보급된 TV의 영향으로 70~80대의 고령층들은 근래 20~30년 동안 구비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40~50대의 중·장년층들도 대부분 전해들은 옛날 이야기의 기억이 없거나 가물가물한 몇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희미하게 제보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완벽한 줄거리가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되는 설화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었고 일화 형식의 짧은 이야기 몇 개를 제보받는 데 그치고 말았다. 제주도방언 표기법에 따라 구술 내용을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적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일부는 표준어로 옮겨 적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信 仰

차 례

1. 개관
2. 공인종교
3. 무속신앙
4. 마을신앙
5. 기타신앙

1. 概 觀

1996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에서 이 마을의 신앙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조사는 공인신앙, 무속신앙, 마을신앙, 기타신앙으로 나누어 행해졌다.

하도리는 창흥동, 동동, 굴동, 신동, 서문동, 서동, 면수동의 7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는 넓은 지역이다. 조사지역과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데다 조사자들의 미숙함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 마을어른들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3박 4일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에 부족한 점이 남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公認信仰

하도리에는 공인종교로 基督教과 佛敎가 있는데, 두 개의 敎會와 세 개의 寺刹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보다는 불교에 호응도가 높다. 기독교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인 하도교회와 하도제일교회가 있고, 사찰로는 태고종인 금봉사와 용문사, 일부 선종회인 명법사가 있다.

1) 기독교

① 하도교회

하도리 2271-4번지에 위치한 하도교회는 기도처소로 시작하여 1951년 10월 8일 김노행, 김봉진, 김봉학, 송옥춘씨 등이 중심이 되어 세화교회에서 개척되었으며, 90년도에 서동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었다.

현재 94년에 부임한 관인석 목사와 20여명의 신도가 있다. 이 신도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60여명에 이른다. 사업 운영은 신도들의 성금과 영락교회와 봉개교회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예배로는 수요일 저녁예배, 일요일 새벽기도, 낮예배, 저녁예배가 있다.

② 하도제일교회

하도리 1238번지에 위치한 하도교회는 이전의 하도성광침례교회가 바뀐 것이다.

하도성광침례교회는 1968년 개척되어 1972년 현 위치에 교회당이 건립되었으며, 1987년 현 김국빈 목사가 부임해 오면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로 개종했다.

현재 신도수는 어린이, 청년, 장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40~50명에 이른다. 이 곳에서는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무료탁아소 등을 운영하고, 1년에 한 두 차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있으며,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청소년 수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운영은 신도들의 성금과 노회 및 교단 내의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수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9시와 11시, 오후 2시와 5시에 있다.

2) 불교

① 금봉사(金鳳寺)

대한 불교 태고종(太古宗) 금봉사는 1926년 대승각 비구니에 의해 현 장소인 하도리 994번지에 건립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사찰로 신도수도 가장 많다. 30년 전부터 이 절을 맡고 있는 주지스님과 이 법인 스님이 있으며, 현재 600세대에 이르는 신도들이 있다.

② 용문사(龍門寺)

용문사는 하도리 314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종파는 금봉사와 같이 태고종이며 1954년 이수열(李守烈) 보살에 의해 창건되었다. 현재 수인 주지스님 아래 300세대에 이르는 신도들이 있다.

③ 명법사(明法寺)

하도리 산19번지에 위치한 명법사는 1956년 김계담(金啓潭) 보살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일봉(서경보 스님) 선교종이다. 각각 뜻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온 용문사와 금봉사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 새롭게 명법사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1962년에 등록명령이 내린 후 1973년에 선종회로 등록하였다. 초대 주지는 한석화 스님이고, 현재 주지는 김광순 스님이며 신도는 150세대에 이른다.

3. 巫俗信仰

7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하도리는 지역이 워낙 넓어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운 좋게도 매투인 심방 고복자씨를 쉽게 만날 수 있어서 무속신앙 조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도리에는 할망당과 각시당, 할미당, 남당, 일렛당이 있다.

1) 신동 할망당

㉠ 堂名 : 할망당

㉡ 神名 : 도길호 도집사, 여래불도 할머니, 삼신 할머니

㉢ 祭日 : 음력 정월 열이틀(과세), 이월 열이틀(영등), 칠월 열나흘(백종제의-농사), 시월 열이틀(햇곡식)에 있는데 3일 전부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

㉣ 祭物 : 매투 두 그릇 또는 세 그릇, 말린 제수(고기), 과일 세 가지(사과, 배, 귤 등), 술
(초 하나(지금은 한 봉), 향(한 판), 종이 한 발(축인))

㉤ 性別 : 남, 여

㉥ 機能 : 1년에 4번 제 지냄, 개인굿(자녀의 시험합격 기원 등), 신굿(심방자격 부여받음), 호강굿(자손들이 잘 살게 되자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후손들도 잘 살게 해 달라고 기원), 질치는 굿(죄를 닦아주는 굿), 아픈 굿(사람이 아팠을 때 병이 낫기를 기원), 귀향풀이(죽은 사람을 위한 굿)

㉦ 당건축형태 : 벽돌, 시멘트로 지어졌음

㉧ 단골 : 마을 주민 및 다른 지역 사람들

㉨ 매투인 심방 계보 : 윗방상 송씨 할머니→영팔최씨 할머니→매무조씨 할머니→복머루 송씨 할머니→욱방상 손씨→동문가름 김씨 할오바님→세통고루 김씨 할머니→셋동네 송씨 할머니→신동네(고복자씨 어머니)→(작은 아버지, 외삼촌)→고복자씨(이전에도 했었으나 21세

결혼 후 하지 않다가 31세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아 맡아서 함)

- ㉠ 위치 : 호추머루 당동산(신동 비석거리 부근)
- ㉡ 지어진 시기 :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1987년 11월에 불에 타 버리자 1988년에 다시 지음(당이 불에 탈때 삼신할망 머리카락과 나무도 같이 타버렸다).
- ㉢ 유래 : 할망당의 유래에 대해서는 고복자씨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나, 할망당에 붙여져 있는 '본당의 유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자라도 그대로 옮긴다.)

<본당 유래에 대한 말씀>

항상 우리 마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천재지변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모든 재앙을 소멸시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리민의 수호신이 되어온 영험하신 본신은 도걸호 도집사이신 여래불도 할머니과 삼신할머님으로 천지개벽 이래 육지로부터 제주 남방국을 차저으실제 특히 하도리를 변영의 땅으로 지목하시어 좌정하실 곳을 속칭 하도리 당동산으로 정하시고 당도하신 후 오래동안 백성들을 괴로웠던 사귀와 병액들을 모라내시고 변영의 태평성대를 이루어 놓았으나 백성들은 미차 이를 깨닫지 못하고 누구하나 그 성의에 보답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를 꾀심하다 여기신 신께서는 속칭 난도려 각시당 앞에 있는 숨구멍을 막아 버렸기 때문에 그로부터는 마을에 언저른 대흥년 들어 마을 사람들의 생활곤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했으므로 전좌수 의령 좌수 묘니오동 경인장 등 마을 유지들이 모두 뭉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인력으로는 별도가 없는 차에 뜻밖에도 마을 당동산에 백발노장이 나타나 구제의 신이 마을에 오신지 오래 되어 많은 덕을 베풀어 왔는데도 모른 척 하였으니 이제 그 벌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앞으로 그 재앙으로부터 버서날려면 내가 시키는 말을 명심하고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추후도 배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정월 十二일에는 과세문안 할 것이요 二월 十二일에는 영등맛이 백마단속할 것이며 十三일에는 一만 어부와 一만 해녀들을 위하여 회생기도를 올리고 七월 十四일에는 백중대제를 올리고 十月 十二일에는 회망곡식 거처 잡아 고장쌀을 위봉하고 성심성의로써 제사를 거행하여 치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모든 재앙은 불시에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령시에 따라 그 자리에 사당 짓고 매년 부락민이 정성들여 제사를 지내는 하루는 흉년과 역운이 점차 사라지고 태평성세를 이루어온 것인 바 수백년 동안에 걸쳐 본당을 주사 하신 공이 크신 역대에 봉머루 송씨 할머니를 비롯하여 영발 최씨 할머니과 옷방상 송씨 하르바님 동문가름 김씨 하르바님 셋동내 송씨 할머니 신동내 양씨 할머니에 이르기까지는 시국에 따라 여러가지 박해와 수난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마을 리장님을 비롯하여 마을에 유지 청년과 전 단골들이 단합하여 굳건히 지켜오고 유지되어 왔으나 근간에 이르러 지난 서기 一九八七년도 十一月 十二일 오전 오시경 피한에 의한 불의에 방화로 인하여 소실당 하였으므로 직시단골회원의 소집을 요청하여 건물은 물론 소중실되었은 열사적 유물과 기물이 모조리 소실되어 없진 것을 가능한데까지 오후 보전할 것을 복구 시켜 놓은지 이래 수년 동안 유지되어 왔으나 그동 단골도 부너 날뿐 아니라 전진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단골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堂(당사)의 확장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단골들 동의를 구한 바 마을 리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당사의 신축을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모든 단골들의 합심협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본단의 락역은 지금까지 본당을 관장하면서 구전되어 내려오는 윗대할머님들에 말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서기 一九九五年 六月 일 당주지 고복자 근백

※ 할망당에 보관되어 있는 한복천들은 해마다 4회 재를 지낼 때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한복천을 가지고 온 것인데, 묵은 천들은 팔아 버린다.

2) 먼수등 할망당 (제보자 : 오두육(80세))

㉠ 당명 : 여씨 할망당

㉡ 신명 : 도걸호 도집사, 여래불도 할머니, 삼신 할머니

㉢ 제일 : 음력 정월 12일, 2월 12일, 7월 12일, 10월 12일.

1년에 4번 당재를 지내는데 이 중에 정월 12일에는 가장 크게 제일을 지낸다.

- ㉔ **재료** : 메 두 그릇, 제수(바닷고기), 실과, 계란 두 개, 종이
- ㉕ **성별** : 남, 여
- ㉖ **기능** : 1년에 4번 제 지냄. 개인굿, 신굿, 호강굿, 질차는 굿, 아픈 굿, 귀향풀이 등
- ㉗ **당건축 형태** : 흙과 나무로 지어졌으나 건물 바깥 쪽은 시멘트로 되어 있음
- ㉘ **단골** : 면수동 사람들(다른 지역 사람들도 찾아오기도 함)
- ㉙ **심방** : 현재 면수동 할망당을 주관하는 분은 오두육(80세)씨로, 3년 전 세화리의 무속하는 분이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맡아왔으며, 오두육씨가 무속한 지는 40대부터다.
- ㉚ **위치** : 면수동
- ㉛ **지어진 시기** : 1945년(해방과 동시에 유물을 묻어둔 자리에 당을 세움)
- ㉜ **유래** : 전라도 여운열 고을에서 출생한 여씨를 모시는 당이다. 여씨가 성년기에 신앙에 뜻을 품어 머리삭발하고 강진 도단으로 입산한다. 중·대사의 수도 과정을 거쳐 선서님이 된다. 영래불법할망으로 본향되고 제주 별방마을로 본향된다. 처음에는 호치동 부근에 여씨 할망당을 모시지만 관리 부실로 폐당 위기에 처해서 마을 부근으로 옮기기로 의논하여, 원자리에서 동쪽으로 500m 지점에 신설된다.

30년대(1936) 총독부에 의한 당 폐쇄 조치 때문에, 면수동의 김현일씨, 김인준씨가 비밀리에 유물(머리카락)을 항아리에 밀봉해서 야밤에 모래를 파고 묻는다.(지금의 면수동 할망당 자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유물을 묻어둔 자리에 당을 세운다. 그후 면수동을 제외한 여섯 부락이 불평하며 당 위치를 중앙으로 옮기자고 한다. 마을간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면수동에서는 파수꾼을 두어 당을 지키다가, 유물을 피신시켰다. 그 이틀 후, 여섯 부락에서 기 및 옷가지를 탈취해가서 새로이 당을 짓는다.

(※ 마을 유지들이 만들어 둔 책자에서 발췌했음.)

3) 각시당

- ㉠ 堂名 : 각시당
- ㉡ 神名 : 도걸호 도집사, 여래불도 할머니, 삼신 할머니
- ㉢ 祭日 : 음력 이월 열사흘(영등달), 원래는 하도리 7마을 전체가 이곳 각시당에서 해녀굿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동네별로 용왕맛이가 행해지고 있다.
- ㉣ 性別 : 남, 여
- ㉤ 祭物 : 메 세 그릇, 말린 제수(고기), 과일 세 가지(사과, 배, 귤 등), 술
- ㉥ 機能 : 해녀굿(해녀들의 무사평안)
- ㉦ 당건조형태 : 성담
- ㉧ 단골 : 마을 해녀들
- ㉨ 유래 : 할망당(본당) 유래 설화에 나와있음
- ㉩ 지어진 시기 : 이전부터 있었으나 성담은 4·3사건 때 쌓음
- ㉪ 위치 : 신동네 토끼섬에서 조금 떨어진 바닷가

4) 할미당

난두리 할머니를 모시는 할미당은 토끼섬에 있는 여 이름으로서 옛날에는 해녀굿을 했었으나 지금은 제단 등을 두어 제를 지내지는 않고, 음력 이월 열사흘에 자손들만 가서 제를 지내기도 한다. 이 당은 하도리 마을의 바람을 관장하는 기능을 한다.

5) 남당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는 남당은 배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배를 가진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기 전에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고, 돌아와서는 무사히 돌아오게 해 준 것을 감사드린다. 돼지머리나 고기

뼈를 놓고 뱃굿을 하기도 하며, 초하루, 보름, 그믐 등에 메 두 그릇을 올리고 개인별로 하기도 한다.

6) 일뿔당

하도리에는 네 군데의 일뿔당이 있는데, 학교 뒤(보루못도한집), 망홍동과 동동 사이, 면수동, 굴동네에 각각 위치해 있다.

조두육씨가 주관하는 면수동 일뿔당의 제일은 6월 7일, 11월 7일(음력)이며, 나머지 세 군데의 일뿔당은 고복자씨가 주관한다. 일뿔당에는 신목이 있는데, 거기에 천들을 묶어놓고 가져간 지전을 걸어 놓은 다음 나무 앞에 메 두 그릇 등의 제물을 차려놓고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기원한다.

(※제보자 : 고복자(50세), 구좌읍 하도리 신동네 2223번지, 83-3324)

4. 마을 信仰 (제보자 : 정홍빈, 오택호)

포제는 하도리의 7개 마을 중 굴동에서만 행해지고 있으며 포제 준비는 동장의 주관 아래 진행된다.

- (1) 명칭 : 천제
- (2) 제신 : 천신
- (3) 제일 : 음력 정월 명절이 지나면 보름 전에 정일과 해일 중에서 날을 잡는다.
- (4) 제장 : 국상 동산
- (5) 제관 : 제관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입제 : 제일이 결정되면 3일 정성을 드리는데, 제관들은 3일전에 목욕재계하고 사초로 들어가 공동생활을 한다. 사초는 마을의 일반 가정집 중에서 정하는데, 병든 사람이 없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집으로 선택한다.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식사제공 등의 일 이외에는 제관 이외의 다른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다. 제일 전날, 낮 12시가 되면 제관들은 사초를 나와 제를 지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때 사초에서 제장까지 황토를 깔았으나 이제는 황토를 깔지는 않는다. 하룻밤을 제장에서 지내고 제일이 되면 제를 지내며, 제를 지내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7) 제물

- ① 메 : 대미(쌀), 소미(육두), 숙미(피), 직미(조)
- ② 포, 해어, 건어
- ③ 오편 : 밤, 대추, 꽃감, 비자, 유자 등
- ④ 회성 : 돼지 한마리
- ⑤ 제주 : 술을 사용하지 않고 감주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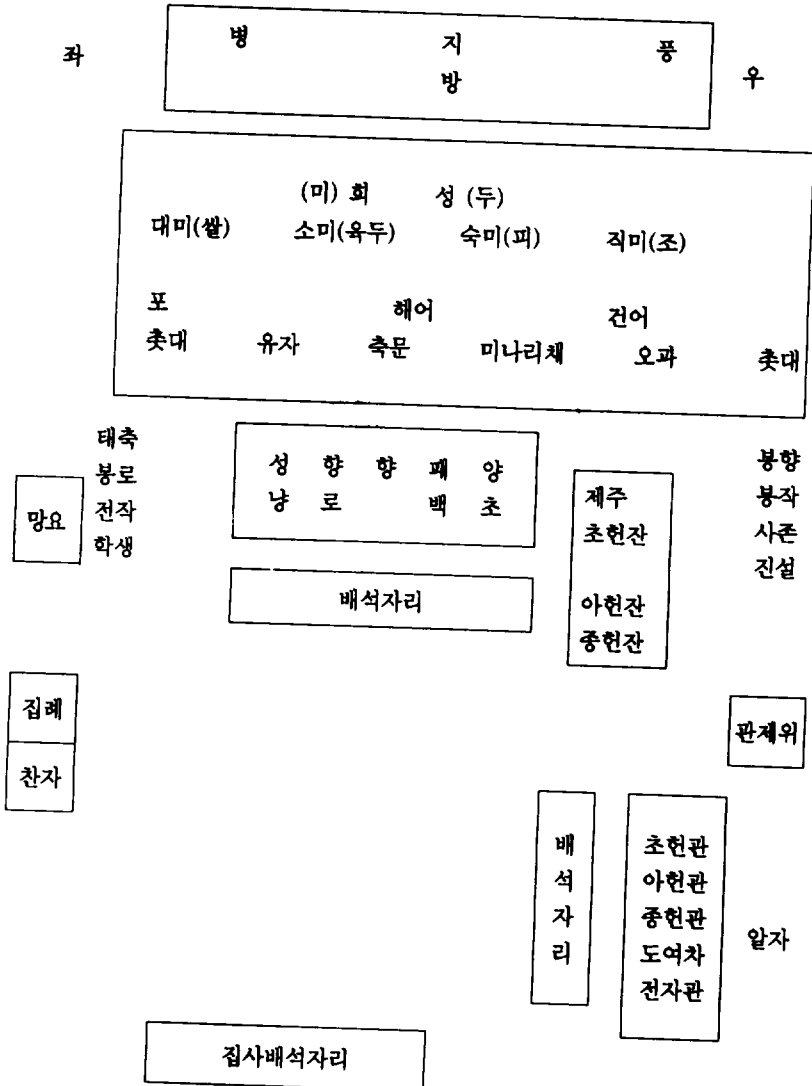
(8) 행제 : 홀기에 따라 진행된다.

(9) 음복 : 제가 끝나면 제물 등을 사초로 가져가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10) 축문

유세차 ○○년 정월 ○일 ○○일 길진을 택하여 항상 천하만민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천신님전에 동민을 대표하여 불초 ○○○이가 삼가고 합니다. 저희 동민들은 각 가정의 행복과 이웃 간의 화목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와같은 생활을 위하여 동민들의 무명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식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농축산물과 해산물도 풍요롭게 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며 군에 입대한 자식들이 군복무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육상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와 해안에서 해녀작업시에 무사히 케어낼 수 있도록 하고 해상선박의 항해에도 안전하게 허주시옵고 또한 동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건강하고 사업도 성공하게 하여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동민들은 서로가 공경하고 아끼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동민들은 정성을 모아 전능하신 천신님전에 맑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올리오니 흠량하시옵소서.

※ 친제(포제) 배치도



5. 기타 信仰

이 외에도 이 마을에는 기타신앙으로서 천지대안도와 타불교가 있었다. 이 중 천지대안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지대안도는 1964년(계운1년)에 설립되었다. 해월산 어머니를 모시며, 신도는 20여명이고, 수도와 기도만 한다. 한달에 3회, 매달 5일, 15일, 25일이 기도일이며, 제주도내 18군데에 분포되어 있다.

<신앙에 대한 질서>

- ① 해월산 어머니를 염원할 일.
- ② 나라에 충성할 일.
- ③ 부모님께 효성할 일.
- ④ 형제간에 화목할 일.
- ⑤ 예의를 마땅히 지킬 일.
- ⑥ 빈한한 자를 구제할 일.
- ⑦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 ⑧ 두 가지 마음을 먹지 말 일.
- ⑨ 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짐을 행하여 우리의 근본을 찾을 일.
- ⑩ 미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